

쑥쑥 오르는 밥상물가... 먹고 살기 버겁다

4인 가구 7개 품목 장보기 비용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7% 올라
외식물가 무서울 정도로 뛰어
지역민들 식·음료 지출부터 줄여



17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4인 가구 기준, 된장국과 간단한 반찬을 해먹을 7개 품목(삼겹살 제외)으로 밥상을 차려보니 총비용 3만5285원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1만3000원(56.7%), 한 달 전보다는 7000원(25.5%) 된 금액이다.

잡은 기상 변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수입 식재료 가격 급등 영향으로 농산물 등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밥상 물가가 끝을 모르고 뛰고 있다.

달려 초강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외식물가 상승세는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17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공시된 광주지역 대형마트 주요 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한 장보기 비용을 산출해보니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7%, 전달보다 25.5% 급등했다.

장보기 비용은 4인 가구가 된장국과 간단한 오이 반찬, 상추쌈(고기 없는 순수 채소쌈)으로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정했다. 쌀 값과 각종 양념장 및 조미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상차림 비용은 3만5285원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일한 품목으로 장봤을 때(2만2524원)보다 1만2761원(56.7% ↑) 더 드는 금액이다. 한 달 전(2만8120원)과 비교하면 7165원(25.5%) 더 지출이 발생한다.

7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상추였다. 4인 가족이 먹을 청상추 200g 가격은 지난해 2064원에서 올해 5280원으로, 2.6배 수준(155.8% ↑) 수준으로 뛰었다. 상추 가격은 한 달 새 84.6%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취정오이 5개 가격은 1만150원으로, 전년보다 103.6%(5165원), 한 달 전보다 69.6%(4165원) 올랐다.

감자 3개(500g) 값은 지난해 1700원에서 올해 2600원으로 52.9% 상승했고, 대파 1kg은 2790원에서 4460원으로 59.9% 급등했다. 1개에 1000원 내외였던 애호박도 2500원으로 뛰었다.

밥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조미료 가격도 크게 올랐다.

청양고추 100g 값은 전년보다 50.8%(670원) 뚝 1990원을 나타냈고, 양파 1kg은 37.2%(810원) 오른 2990원으로 집계됐다. 깬마늘 500g 가격은 7815원으로, 전년보다 4.4%(330원) 올

랐다. 여기에서 최근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삼겹살 한 근(600g)은 1만5000원으로, '삼겹살 파티'도 부담스러울 정도다.

식재료 가격 상승은 외식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광주 7.7%·전남 8.7% 올랐는데,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대표적인 복달임 음식인 광주 삼계탕 외식가격은 지난해 기준 1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4400원)보다 4.2% 인상됐다. 전남 삼계탕 가격은 7.0%(1000원) 오른 1만5222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쌌다.

호남지방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술' 소주 외식가격은 광주 11.9%·전남 13.8% 올랐고, 생선회는 광주 16.4%·전남 12.7% 뛰었다. 밀가루가 주재료인 짬뽕(광주 11.8%·전남 10.2%)과 짜장면(광주 10.9%·전남

11.4%), 냉면(광주 11.0%·전남 7.0%) 등도 가격이 올랐다. 1만원 이하 짜리 설렁탕을 찾기가 어려워 뿐만 아니라 콩물국수나 모밀국수 등 면류도 곱빼기는 1만원을 내야 한다.

호남통계청이 지난달 가격을 조사한 외식 품목 38개 가운데 음료와 구내식당 식사비를 제외하 나머지 모두 가격이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교역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밀가루(광주 44.6%·전남 37.6%)와 식용유(광주 43.3%·전남 32.5%)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경제 불황 속 물가가 지속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는 국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최근 단행했지만, 올 가을에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기반으로 생필품 '최저가'를 내세우며

소비 집체에 대응하고 있지만, 골목상권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민들은 당장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지갑을 닫으며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KJ카드(신용·체크) 건당 매출액을 집계해보니 식·음료류 1건당 지출액은 2만7744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8788원)보다 3.6%(-1044원) 줄었다.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업(영리) 부문 건당 지출액도 2만5528원에서 2만4742원으로, 3.1%(-786원) 감소했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연료판매점 카드 지출은 건당 5만5006원에서 6만1069원으로, 11.0%(6063원) 뛰었다. 광주·전남 주유소 평균 휘발유 1당 가격은 올해 5월 말부터 한 달 반 넘게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4억 원 미만 주택 고정금리로 전환

당정, 94만명분 코로나 치료제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선 코로나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병상 5573개와 치료제 78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해제되니 대면 범죄 증가 ▶6면

높이뛰기 우상학, 바심을 넘어서 ▶18면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 부산 ▶22면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제헌절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

월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반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주자였던 1년 전 제헌절, 광주를 직접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찾은 5·18 42주년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행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